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10/11월호 2010

최치규목사 송별 사진



(윗줄: 전종범목사, 전종철목사내외, 김기천목사, 김의석목사내외)
(아랫줄: 신경일목사내외, 최치규목사내외, 이석중목사내외)

[한인회 소식]

지난 9월 25일 **제3회 추석맞이 김치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봉사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런치박스(밥, 불고기, 만두, 배추김치, 알타리, 깍두기, 오이소박이, 백김치, 물김치, 파김치, 김치전, 부추김치, 물감주, 수정과, 떡)를 \$10에 판매함으로 다양한 음식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후원하신 분들

프로그램/ 이회정 :부채춤,칼춤,장구춤), 민요 : 최귀분, 태권도:BlackMan(Danny Goslau/Ben G Aldrich/ Jake Fuller/Kohl Caplar 후원자/감리교회(김기천목사),침례교회(윤성열목사),주님의교회(김의석목사),성결교회(전종철목사) Sizzler(최진 전회장),Pacific Rim(정풍자 전회장),Sakura(최은희권사),아리랑,김스,A-1,UNM학생회,김영신, 박달규, 조규자(Las Cruces), 김두남, 낸시 낸스, 위점덕, 윤태자, 소냐 웰던, 최선남, 한명섭, 최경자,박상민,한인회 임원 그 외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셨습니다. 수익금은 3,558,00입니다





순회영사업무일정

11월 20일 (토) 11:30-5:00 한인회관에서 있습니다.

*업무: 여권갱신 - 귀가 드러난 사진 2장 필요합니다.

(전자여권은 10년이오니 기한이 1년정도 남아있어도 갱신하기를 권합니다.)

비자발급, 재산포기, 거주확인 그외 등등

양식은

http://usa-losangeles.mofat.go.kr/kor/am/usa-losangeles/civil_appeal/download/commom/index.jsp 에서 받으십시오.

문의 사항: 김두남회장님께 문의 바랍니다 (505-270-1984)

한나라당 재외국민국에서는 재외 국민협력위원회 활동 및 당의 재외동포 정책 등을 담은 소식지를 이메일로 발송해 준다고 합니다. 성명, 성별, 연령, 거주국가 및 도시, 소속, 직책, 연락처, 이메일주소를 작성해서 한나라당 재외 국민국 E 메일: abroad@hannara.or.kr로 보내시면 됩니다.

UNM 한인학생회

안녕하십니까?

2010 가을학기부터 University of New Mexico Korean Student Association 회장으로 일하게 된 허병석입니다. 오랫동안 광야의 소리에 소식을 전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0일 금요일 한인회관에서 UNM 한인학생회 Fall 2010 개강총회를 열었습니다. 새로 구성된 임원진과 올해 UNM에 입학한 새내기들을 기존에 있던 학부생들에게 소개하고 어학연수, 연구, 혹은 직장을 위해 Albuquerque로 오신 분들 또한 오셔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준비와 진행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격려해 주신 참석자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예년처럼 장소를 제공해주신 한인회와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저녁식사 준비가 어려웠는데 거리낌없이 도와주신 성결교회 전종철 목사님, 권지현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경황없이 급작스레 부탁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불경기에 흔쾌히 경품을 후원해주신 A-1 Market, Shogun, Piliy, Fujiyama 사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 Coors Kelly liquor store(이정옥, 김민지 님) 에서 다시 한번 후원 해주셨고, 저녁준비와 함께 donation 까지 해주신 성결교회 전종철 목사님, 권지현 사모님, 그리고 한인학교 전옥미 교장 선생님 모두 격하게 감사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말로만 감사를 드리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UNM KSA는 이번 학기에 열리는 Outdoor soccer, Basketball tournament 에 참가할 예정이며 가을방학, 혹은 겨울방학때에 캠핑, 보드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가을로 넘어가면서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광야의 소리에서 뵈겠습니다.

UNM KSA 임원진 일동.

내용 Contents

한인회 소식 ▷ p.1

교역지협의회 수필쓰는 마음 ▷ p.3

차코문화 국립역사 공원(Chaco Culture) ▷ p.4

인디안 선교 ▷ p.7

이름답고 또 자랑스런 성전 ▷ p.10

좋은 남편이 됩시다 ▷ p.11

Enjoyable mix of East and West ▷ p.12

지구촌 소식 ▷ p.14

광야의 소리는

매달 1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뉴멕시코주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 권구자 505-553-1009, Kuchachoy@q.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 Voice in the Wilderness §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9월 교역자 협의회

모임: 09.13.10 오후4시

참여자: 최치규목사 내외, 이석중목사 내외, 신정일목사 내외, 김기천목사, 전종범목사, 김의석목사 내외, 전종철목사 내외 (총12명)

찬양인도: 김의석목사

찬송가: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도: 김기천목사

말씀: 전종범목사 (마태복음 20장20-28절) - 목회자가 가져야 할 리더십

군생활33년, 4월17일 인수 받음, 83년도 중대장 -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 그만두고 나감, 아내가 하던 잘 운영되던 미술 학원도 내려놓음.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40분을 더 전방으로 감. 야간근무를 서는 병사들을 돌아보면서 커피를 타서 나눠주고 전역하는 병사에게는 맛있는 것 차려주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한 병사가 아꼈는데 군의관은 피병으로 진단했고 연대장도 군의관의 말에 피병으로 판단을 내리고 후송을 보내지 않았는데 계속 건의해서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단 내리기를 대장암으로 진단 내려졌고 결국 숨질 때 유언장을 남김으로 연대장과 군의관을 고발했을 때 포대장은 예외로 부탁을 하는 내용을 남김. 이·취임식 후 서울로 올라갈 때 전방에서 군생활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대대장으로 보직을 받고 갔을 때 모든 일을 규정대로 행하게 됨. 잘한 것에는 포상을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벌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는 무슨 말을 하기만하면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병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사들뿐 아니라 지역 유지들 까지도 존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대장일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교제하던 것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는 자로서 어떻게 지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세상에서는 권한을 가지고 이끌고 가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처럼 끌고 가게 되면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섬기는가? 우리는 정말 죽기까지 섬기는가? 마태복음 7장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 황제 부의를 보면 나이 많은 시종이 부의를 열심히 섬김. 요한일서 1장에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목숨을 걸고 양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폐회

(교역자 모임에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최치규 목사)

수필 쓰는 마음

이 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은 그 성격상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문학양식이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수필이라는 형식의 글을 써 내고 있음을 본

다. 그리고 일반 문장가나 수필가들은 가끔씩 수필에 대한 자기 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런 의견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정의가 아닌 자기 나름의 소감을 말하는 것이어서,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 한데,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트리려 신변잡기나 자서전이라면 알맞을 아마추어들의 수필집이나 동인지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문학의 한 양식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된 수필을 쓰려면, 그것의 양식이나 구성에 대하여 좀더 잘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여 써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수필에 대한 사전의 정의는 '어떤 형식에 얽매임이 없이 인생과 자연에 대하여 보고 느낀 것을 생각나는 대로 써 나가는 산문형식의 짧은 글'이다.

내가 수필을 쓰는 것은 무슨 예술적인 충동에서가 아니다. 생활의 방편은 더더욱 아니다. 골치 아픈 일을 마치고 나면 좀 재미나는 일이나 여가를 즐기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 오십년도 넘는 긴 세월 동안 한 분야에서만 일한 후에 내가 찾은 그 재미나는 일이 바로 글 쓰는 일이었다. 정년이 다가오자 나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런 여유가 반드시 나를 재창조할 수 있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겨우내 움츠렸다가 맞이한 봄날이 한없이 화창해서 지팡이 하나 찾아 들고 무작정 길을 나선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이 몹시 그리워질 때면 붓을 든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은 시골이다. 흙 냄새, 두엄 냄새를 맡으면서 여름 밤이면 동무들과 함께 마당에 펴 놓은 멍석 위에 누워 하늘의 별을 헤아리면서 자랐다. 샘에서 길어 올린 시원한 물로 목물을 한 저녁이면 깊은 잠이 들었다. 논둑을 누비면서 매뚜기를 잡고, 거미줄로 만든 잠자리채를 들고 고추잠자리며 각시잠자리를 많이도 쫓아다녔다. 추운 겨울에는 넉넉하게 불을 지핀 방 아랫목에 앉아 광에서 꺼내온 큼직한 나주배를 깎아 먹고, 어머니를 졸라 이가 시리도록 찬 동치미에 야참을 즐겼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호롱불 밑에서 숙제를 했다. 흐뭇하고 따뜻한 기억으로 얼룩진 곳, 세월이 가고 멀리 떠나있어도 잊혀지 않는 한적한 시골을 고향으로 둔 탓에 남들이 갖지 못한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번잡한 도시에 살면서도 나는 늘 행복했다. 늙으면 다시 어린애로 돌아간다는 말은 옳은 말이다.

나를 되돌아보고 싶을 때 글을 쓴다. 수많은 일을 겪는 것이 삶이라, 그 많은 일들을 어찌 다 기억할 수 있으랴 만 기뻐던 일보다 슬펐던 일에, 잘한 일보다 잘못된 일에 더 마음이 쓰인다. 한 번 겪은 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 이미 인생의 오후에 접어든 터에 새삼을 놓고 지금의 나라면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대처할까 생각해볼 뿐이다. 스스로의 모자람을 인정하는 여유를 즐길 뿐이다. 지나간 여행을 마친 나그네가 안식처에 들 날이 며칠 남지 않아, 잠시 멈춰 서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객수를 달래보는 것이다.

해질녘 산아래 웅기중기 모여 있는 초가집 굴뚝에서 피어 오르는 연기가 보고 싶어진다. 저 멀리 논 가득 꽃핀 자운영이 봄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웬지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찡해지던 때가 그립다. 어디선지 모르게 은은하게 퍼져 마음을 끌던 아카시아 꽃 향기를 맡아보고 싶다. 시원한 계곡에 앉아 찬 물에 발을 담그고 싶다. 깊어가는 가을날 산 가득 단풍 든 내장산 오솔길을 마냥 걸어봤으면 좋겠다. 눈발을 물고 오는 세찬 겨울바람이 소나무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도 듣고 싶다. 함박눈이 쏟아져 눈부시게 흰 들길을 걸으며 마음의 때를 말끔하게 씻어내 버리고 싶어진다. 이럴 때 나는 머지않아 영원히 한적한 데로 돌아가야 할 나임을 느끼면서 붓을 달린다.

문득문득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나는 수필을 쓴다. 살아오는 동안 슬펐던 일보다 기뻐던 일이 훨씬 더 많았음에 감사한다. 모자람이 많은 나를 항상 좋게 봐주고, 내 어려움을 함께 해주었으며, 이성을 떠날 때까지 나를 마음에 두어줄 친구가 있음에 감사한다. 자기가 맡은 일을 완수한 다음에는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하늘의 도리 [功遂身退 天之道也] 라고 노자가 가르쳤는데, 그 길을 나도 걸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전 자매일로 멀리 떨어져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실제시간에 안부를 묻고 들을 수 있는 인터넷시대를 살고 있음에 감사한다. 그리고 칠순을 넘긴 아내와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날마다 탁구를 즐기며 살고 있음에 감사한다.

"초심자의 머리에는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전문가의 머리에는 소수의 가능성만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그것의 모든 면을 경험해보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이다. 하지만 일단 그것에 속달했다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쏟아 넣은 시간이나 노력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보려는 눈을 닫아버리는 것도 사람이다. 일본의 선승 스즈끼의 해안이다. 따로 지도를 받은 적도 없이 그저 여기저기서 읽고, 나름대로 글을 쓰는 나는 말 그대로 신출내기여서, 타고난 그 방면의 내 기량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뿐이다.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Albuquerque NM 98112

Mon~Sat
10:00~6:00

Sunday
close

**뉴멕시코주 관광안내

차코문화 국립역사 공원(Chaco Culture National Historical Park)

글과 사진 : 이경화

국립공원중에서 아주 특이한 곳이다. 이 공원은 역사 공원이라고 부르는 만큼 시간의 공간을 넘어야하는 공원이다. 약 천년전의 역사속으로 들어가서 유적을 보며 옛날의 문화를 생각하게 하는 공원이다. 또한 이 공원은 지역적으로도 외지고 먼곳에 있다. 공원으로 들어가는 16마일의 도로는 포장도 안되어 있어 교통이 불편한것까지 겹치니 더 먼곳같이 느껴진다. 시간과 공간 두가지 모두가 멀게 느껴지는 이곳을 관광지로 소개하는 까닭은 이곳에는 너무나 많은 신비스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까닭이다.



사진 1. 차코문화국립역사공원 입구의 Sign

뉴멕시코의 서북부의 고원지대인 산환분지 (San Juan Basin)에 있는 차코 캐년(Chaco Canyon)에 900년부터 1150년까지 아나사지 인디언이 찬란한 문화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한 건물에 수백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같은 대형 건물을 다 층구조로 여러채를 지었다. 벽을 쌓는것은 현지에서 나오는 사암돌을 벽돌같이 잘라서 층층이 쌓아서 대형건물을 지었는데 4-5층 구조로 짓기위해 많은 석가래용 통나무가 필요했다. 그들이 사용한 통나무 수는 약 20만개였을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부근은 비가 오지 않는 황야여서 큰 나무가 자라지를 않는 곳이다. 그들은 50마일이 되는 먼 거리에 있는 산에서 벌목을 해서 운반해 가져왔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마차라는게 없었고 바퀴자체가 발명되지 않았으니 인적 노동력에 의존했을텐데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했는지 알수가 없다. 애초에 집단 거주 지역을 왜 산밑이나 강가 같은 입지조건이 좋은곳을 택 하질않고 이와 같은 사막같은 황야의 고원지대에 정했는지도 알수가 없다. 이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직선도로를 여러개 만들어 주변의 다른 마을과 연결되게 해놓았는데 도로의 폭이 30ft나 되게했다. 마차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넓은

도로를 만들었는지도 알수 없는 일이다. 달과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춘분과 추분의 날짜를 알았고 천문학적 지식을 건축공사와 농사짓는 일에 적용시켰다. 도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되었고 그들의 터키석(Turquoise) 보석 공예품은 멀리 남쪽 멕시코의 정글과 태평양 연안에 까지 거래되었다.

그러나 1150년경 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말마암아 아나사지 인디언들은 살기가 어려워지자 이곳을 버리고 생활여건이 좋은곳으로 떠나기 시작했다. 현재의 나바호(Navajo), 주니(Zuni), 푸에블로(Pueblo) 인디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한것 같다고 한다. 그후 차코 케년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많은 대형 건물은 먼지를 뒤집어쓰고 흙더미로 덮힌채 60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1846년 뒤늦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1896년 본격적인 고고학적 발굴작업이 시작되어 Pueblo Bonita의 한 건물에서는 5년간 발굴결과 60,000여점의 유물을 화물차에 실어 뉴욕 박물관으로 보냈었다. 1907년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 National Monument로 지정되었고 1980년에는 국립역사 공원(National Historical Park)으로 지정되었다. 1987년 UNESCO에서 세계문화유산지역(World Heritage Site)으로 지정되었다. 이 공원내에는 약 2400개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유적지가 발견되었지만 발굴작업을 한 유적지는 소수에 불과하고 앞으로 발굴해야될 유적지는 많지만 되도록 발굴을 서두르지 않고 미루어 고고학적 과학기술이 더 발전될 후 세대에 가서 하도록 유적지 보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1. 공원내의 중요 유적지와 Trail

이곳으로 가는 길은 알버커키에서 I-25로 16마일 북쪽으로 가다가 Exit 242로 나와 US550 (NM44)번 도로로 서쪽을 향하여 70마일을 가면 Cuba를 지나며 48마일을 더가면 (마일 포스트로 112.5마일지점) 주유소가 있는 마을근처에서 County Road 7900을 만난다. 이곳은 Nageezi란 마을을 3마일 앞에 둔 지점이다. CR7900으로 좌회전해서 포장된 5마일을 가서는 우회전해서 CR7950으로 바꾸어 공원 Sign을 따

라 16마일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 공원 입구에 이르러 포장된 도로로 들어선다.

공원 남쪽에서 57번도로 (혹은 14번) 들어가는 길도 지도에 표시되어 있으나 추천할수 없는 길이다. 도로 관리가 전혀 않된 길이여서 SUV차라고 할지라도 비가 온뒤에는 도저히 갈수 없을때가 있는 힘든 길이다.

공원에서 둘러 보아야 중요한곳을 몇곳 아래에 추천해본다.



사진 2. Visitor Center내의 전시물

1. Visitor Center

이곳은 당연히 들려야 할곳이다. 입장료를 지불해야 될뿐만 아니라 역사공원인 만큼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시간적 공간을 넘어서는게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연다. 차코문화에 관한 비디오가 상영되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파악하게 하는 추천할만한 비디오 프로그램이다. 전시장의 전시물로서 터키석을 이용한 공예품, 물 그릇을 위시하여 여러가지 도기들과 이를 장식한 무늬가 특이하다. 터키석으로 가공한 유품은 6만개 이상이 이 공원에서 발굴되었다고 한다.

최근에 와서 공중사진과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으로 옛날에 만든 도로의 흔적을 볼수 있다. 차코 케년을 중심으로 거미줄같이 사방으로 뻗어나간 직선도로가 모두 합치면 약 400마일이된다. 말이란 동물이 없었고 바퀴 달린 차가 발명되기 이전에 폭이 30ft(10m)아 되게 직선도로를 계획적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중 하나다. 도로를 만들때 산이나 언덕같은 장애물이 있을때 이를 피해 돌아가는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들이 만든 도로는 계단을 만들더라고 직선을 고집하며 굽힘이 없는 직선 도로를 만든 이유를 아직 알 길이 없다.

2. 파하다 뷰트

Visitor Center 남쪽을 보면 파하다 뷰트(Fajada Butte)라고 부르는 뾰족한 산 봉우리가 보인다. 이곳은 유적의 보존

을 위해서 일반 여행객의 접근이 금지된 곳이다. 이곳은 당시의 천문관측의 유적이 있는 곳이다. 해의 위치에 따른 돌판사이로 비치는 그림자의 이동을 관측하여 동지와 하지, 춘분 추분을 알아내는 나선형의 Petroglyph가 있는데 이를 Sun Dagger라고 부른다. 현장에는 갈수가 없지만 Visitor Center에서 상세하게 설명된 자료를 볼 수 있다.



사진 3. 태양관측에 쓰인 Sun Dagger가 있는 Fajada Butte.

3. 우나 비다(Una Vida)

Visitor Center 앞 주차장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유적지로서 약 150개의 방과 다섯개의 Kiva를 가진 곳이다. 발굴을 하지 않은 상태의 유적지로 대표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사진 4. Pueblo Bonito의 전경.

4. 푸에블로 보니토(Pueblo Bonito)

이곳 공원에 있는 유적지 중에서 가장 크고 차코문명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다. Pueblo Bonito의 뜻은 "아름다운 마을"이란 뜻이 된다. 4층 구조로 지은 대형 아파트 같은 건물로서 651개의 방과 40개의 Kiva를 가진 건물 유적지다. Park Ranger가 안내하는 Guided Tour가 오전 10시와 오후 2에 있는데 이를 따라가면 푸에블로 보니토를 더욱 깊이 있게 관광할 수 있다. 시간을 맞추기 어려우면 Self-Guided로

혼자 구경할 수도 있다. 반달모양이라 할 수도 있고 "D" 글자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설계로 지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에는 1000년전 본래의 Pueblo Bonito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다. 건물의 배치가 남향이 되도록 지었는데 반원의 직경 부분이 되는 전면의 벽이 춘분과 추분때의 해뜨는 지점과 해지는 지점을 이은 선에 일치하게 배치를 했다고 한다. 이 건물은 주택지로 쓰인 것은 아니고 종교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쓰여진 건물로 추정한다고 한다.



사진 5. Pueblo Bonito의 상상도.



사진 6. Pueblo Bonito의 Kiva에 관한 설명을 듣는 관광객.

5. Kin Kresto

"노란 집"이라는 뜻을 가진 Kin Kresto(킨 크레스토)는 사암 벽돌의 색깔이 특별히 노랑색이여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다. 100여개의 방과 5개의 Kiva를 가진 건축물이다. Pueblo Bonito 주차장에서 서쪽으로 가면 Loop의 One Way 길에서 벗어나는 길로 들어서서 Kin Kresto 주차장에 이른다. 거기서 도보로 약 0.3마일 서쪽으로 걸어야 된다. Mesa위로 가는 Trail로 하이킹을 할려면 이 길을 택해야 된다.

6. 푸에블로 알토(Pueblo Alto)

하이킹을 한다면 이곳을 가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Pueblo Alto는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이란 이름의 뜻 그대로 이 지역의 제일 높은 곳에 있다. 이곳으로 가는 Trail은 Kin Kresto의 뒤에서 시작해서 절벽 틈으로 올라가게 된다. 왕복 3마일이 되

는데 도중에는 Pueblo Bonito를 내려다 볼수 있는 지점으로
가 볼수도 있다.

Pueblo Alto는 Mesa꼭대기에 있어서 북쪽으로 트인 광야
를 내려 보게 된다. 천 년 전에 만든 직선도로는 이곳 푸에블
로 알토로 모이게 된것을 보면 이 마을은 교통의 중요한 역할
을 한곳 같다.

끝으로 공원소개에 도움이되는 웹사이트를 아래에 몇개 적
어둔다.

* 차코국립공원 홈페이지: www.nps.gov/chcu

* 태양관측(Sun Dagger Explorer): accad.osu.edu/~aprice/works/sundagger

* 위키페디아 백과 사전: en.wikipedia.org/wiki/Chaco_Culture_National_Historical_Park



사진 7. Pueblo Bonito의 유명한 방과 방사이를 잇는 연속
된 문들.

Native American Mission

I. 선교사 소개

1. 조 성 현 : 은혜신학대학 졸업, 신학 학사, Southbaylo 한
의과 대학 졸업, 한의학 석사. 한의사
2. 조 정 이 : 사모, 간호사(RN)
3. 조 영 대 : 큰 아들, 12학년, 찬양 인도자
4. 조 영 준 : 작은 아들, 6학년, 찬양 팀 드럼 연주자



II. 지금까지의 선교사역

1. 2007년 11월 5일 선교지(Gallup, NM)로 이주
2.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의료선교 실시
3. 2008, 2009, 2010년 여름사역 : Navajo Nation 14 ~
16개 지역에서 의료사역, Navajo 교회 VBS 및 Youth 사역
지원, Pastor Tom White Revival Tent Meeting 지원, 말
씀 증거, 찬양 인도 등
4. 많은 나바호 교회 및 목회자들과 지속적으로 교제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사역을 함께한 교회들이 부흥의 전기를 맞이하
고 있습니다.





THE INGLES Company Realtors

최 귀 분

- Office: 505-828-1366
- Fax: 505-828-0773
- Cell: 505-249-8686
- E-mail: guiboon@msn.com



Ⅲ. 지금까지의 기도 제목 및 응답

1. 이동 선교 한의원

1) 열악한 자연 환경 속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으로 인해 이동 선교 한의원을 위해 기도를 계속함

2) 2009년 8월 말 한 성도님이 이동 선교 한의원을 위해 RV 트레일러 구입비용으로 \$12,000 현금, 9월 초 22피트 트레일러 구입하여 이동 한의원으로 사용 중.



2. 나바호 교회 목회

1) Navajo Nation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교회, 목회의 좋은 본이 되어 질 교회, Navajo족뿐만 아니라 Native American 선교를 책임질 교회를 목표로 기도.

2) 구체적인 교회와 관련된 기도 내용

(1) 주님, 교회는 Navajo Nation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주님, 교회는 목회자가 떠나 문이 닫혀 있는 교회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3) 주님, 교회 부지는 최소 5에이커에서 10에이커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4) 주님, 다시 교회를 여는 첫 예배는 부활주일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이 닫혔다는 것은 무언 중 죽음으로 몰려가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기에 부활주일이 아주 좋을 듯 싶습니다.

3) 기도 응답

(1) 2010년 3월 12일 주님께서 나바호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2) 교회이름은 Grace Community Church입니다.

(3) 교회는 Rock Springs NM 라는 지역으로 Navajo Nation안에 있습니다.

(4) 교회는 2009년 6월부터 전임 목사님의 소천으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5) 교회는 5에이커의 부지가 있습니다.

(6) 그리고 2010년 부활주일에 첫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렸습니다.



Ⅳ. 목회 현황

1. 교회 명 : Grace Community Church-Rock Springs Baptist Mission

2. 첫 예배 : 2010. 4. 4 부활 주일 : 한 분의 나바호 성도님 등록

3. 현재 교인 등록 현황 : 약 80명 정도의 나바호 성도님들이 교회를 방문하셨고 매주일 어린 아이들 포함 50~60명 정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 7월 25일 7분의 성도님들에게 침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5. 교회는 60석의 본당과 35명 수용의 친교 실 그리고 3개의 주일학교용 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택용 주택 2채가 있습니다.





V. 계속 되어지는 기도 제목

1. Native American 중보기도 센터 설립

(1) 선교의 지경을 나바호에서 전체 Native American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중보기도 센터가 필수적이라고 사료됨

(2) 모든 나바호 선교를 위해 모이는 선교 팀들이 나바호 선교 및 Native American 선교를 위해 공동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제공.

(3) 현재 있는 교회를 중축하거나 새로운 교회 건축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선교 교육원 설립

1) 나바호 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 선교 교육원을 설립하여 교육으로 교회들을 지원

2) 구체적인 교육 목표

(1) 나바호 목회자 훈련원

– 나바호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비전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목회를 위한 도구들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목회의 비전을 발견하고 목회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함

– 신학적 지식 및 영적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함으로써 영적인 고갈이 없이 지속적으로 양들을 양육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

(3) 나바호 평신도 훈련원 :

- 교회학교 교사 양성 교육
- 찬양 사역자 양성 교육
- 평신도 지도자 양성 교육 :

–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실시 : 내적 치유, Tres dias, 아버지 교실 등

(4) 한국교회 및 미국교회 단기선교를 위한 선교훈련원

3. 신학교 설립

1) 신학교 분교 설립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4. 교회 부흥

1)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교회, 나바호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본이 되어 질 교회, 하나님의 말씀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를 책임지는 교회

2) 교회 재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VI. 후원 요청

1. Navajo 및 Native American 선교를 위해 후원을 요청합니다.

2. 중보기도로 물질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3. 저희교회는 Southern Baptist에 속해 있으며 모든 선교 후원금에 대해 Tax deduction documentation을 발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우리 주님께서 Native American 선교를 우리 한국인 손에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Navajo의 기독교인은 1% 정도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Navajo 분들이 예수님은 백인의 신이고 백인들이 자신의 땅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은 백인의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로 인해 기독교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 이곳이 Native American의 영적 주소입니다. 이제는 제 3자적인 중보가 들어가 예수님은 백인만의 신이 아니라 아시아인 및 Native American의 신, 전 우주적 절대 신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곳을 방문해 보십시오. 그들의 영적 슬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은행명 : Wellsfargo Bank

계좌번호 : 8021021673

계좌 명 및 Pay to order: Late Rains Healing Mission

주소 : PO Box 6052 Gallup NM 87305



아름답고 또 자랑스러운 성전

김 준호 장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열왕기상 8: 27-28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 기도 드린 한 부분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다. 그런데 창조된 순서를 보면 빛, 공기, 물 등으로 되어 있다. 그 순서가 무엇 때문에 중요하리라는 나는 그래도 왜 그렇게 창조하였는지 캐묻고 싶어진다. 이 지구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 중 생물과 식물들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살아 있을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그저 우연하게 진행되었다고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식물이 창조되었는데 "Carbon Cycle"이라는 자연법칙이 있어서 생물은 산소(O₂)를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며 CO₂ gas를 내뿜고, 식물은 CO₂ gas를 취하고 산소를 내뿜어서 상호관계를 유지한다. 그런데 이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고 깨질 때 지구는 큰 문제가 생긴다. 여러 과학자들이 이 문제를 연구하며 Global Warming을 논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climatic하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를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 라며 자화자찬하신 것이다. 또 아담은 자기 배필로 만든 이브를 보며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감탄 하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자들이 이브의 후손을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귀히 여기며 살고 있는 지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다, 글썄 올시다, 내 자신도 지난 50 여 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아내의 고마움과 아름다움을 지금에야 깨우쳤으니 혹시 어떤 이들은 김 장로 노망이 든 게 아니냐 할 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니 어찌하랴,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모르고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좀 안타깝기도 하다.

하긴 아담과 이브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 났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게 하여 씻을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이 악하게 되었다. 마귀가 마음을 충동거리면 못할 것도 없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한다. 종말은 꼭 올 것인데, 그때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인과 의인을 심판하고 의인은 천국으로 죄인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이다. 7년 대 환란이 올 때 주님이 자비하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 큰 착각이다. 성경은 지금 회개하라고 선언한다.

나는 늘 "새 신자 환영회"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 아마 몇

몇 분들은 "김 장로, Here you go again" 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글로 남기려고 한다. 먼저 우리교회를 새로 건축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력을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또한 작년 10월에 소천하신 오수나 화원의 안장환 선생님이시다. 그 분께서 지난 2000년에 현재 우리교회에 땅을 헌납 해 주셨다. 나는 지금도 그분의 유머 넘치는 대화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박영숙 집사님의 화랑에 가 보면 거기에 큰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작품 안의 인물에게서 안장환 선생님의 인상을 받게 된다. 나는 그 작품을 볼 때 마다, "안 선생님, 저기 있네" 라고 Joke 를 하곤 한다.

그건 그렇고 우리들이 이 부지에다 새 성전을 건축 할 때 대략적인 생각은 있었지만 성전의 크기를 얼마를 해야 하고, 천정 높이는 얼마로 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교인 120명이 앉을 수 있게 하라고 건축업자에게 말했었다. 이렇게 시작된 건축이 2002년 6월에 착공되었고 1년 후에 완공된 것이다. 그런데 희한한 사실 하나가 우리교회 예배실에 감추어져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모형도를 참고하세요)



우리교회 성전 모형도 높이20' x 넓이32x 길이48

(이모형도는 2002년 6월에 착공했을 때 만든 것임)

우리성전 Ceiling 이 flat 하지 않고 Cathedral ceiling 으로 되어 있어서 음들이 ceiling 에서 반사되면서 여러 각도로 분산된다. 그 결과로 좋은 음향효과를 낸다. 또한 천정의 평균 높이는 20 피트이고 넓이는 32 피트, 길이는 48피트여서 총 부피는 20'x32'x48'= 30720 큐빅피트가 되고 이들의 비례는 20:32:48=10:16:24가 된다. "10:16:24"라는 비례는 많은 음향공학 전문가들과 큰 컨서트 홀 설계자들이 선호하는 건축비례라고 한다, 물론 그 이론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좀 복잡하기는 하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하다고 알려진 Parameter는 잔향계수 (reverberation time, RT 60)인 것이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이 어느 좌석에 앉아 있어도 명료하게 들려야 하므로 intelligibility(명료함)이 좋으려면 잔향시간이 짧아야 하지만

찬양대원들의 합창이나 교인 전체가 부르는 찬양곡들이 아름답게 들리려면 잔향시간이 조금 길어야 한다. 우리 교회 예배실의 총 부피가 3만 큐빅 피트가 되므로 이론상으로 잔향시간이 1.5초가 최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현재 이 모형도에 빨간 부분이 Special Ceiling Panel로 되어 있는데 평균 잔향시간이 .94 초이다. 빨간 부분이 자세히 보면 다른 부분보다 더 하얗게 보인다. 강대상 위의 천정 뒷벽에서부터 12 피트까지는 reflection이 제일 잘된다는 나무와 거의 같은 ceiling panel을 사용하였다. 언젠가 우리교회 자금 사정이 허락되어 12피트 더 붙여진다면 잔향시간이 1.33초로 거의 최적한 잔향시간에 접근하게 된다.

.94 초가 낮다고 실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소프라노의 음대가 C4(261.63 Hz)에서 C6(1046.50 Hz) 까지라고 본다면 1000 Hz에서 잔향시간이 1.26 초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본다. 만약에 12 피트 더 add 한다면 그 수치는 1.53 초가 된다. 이것이야 말로 콘서트홀의 무동도원이 아닌가. 이 예측이 맞는지는 직접 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Pleasing sound, Warm sound를 원하는데 그것은 많은 Harmonics가 있어야 하고 RT가 길어야 한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성전은 어떤 콘서트홀에 뒤지지 않는 Best Sounding Hall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교회 성가대원 중에 E6(1318.51 Hz)까지 내는 분이 있어서 참 좋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 중 왕정시대에 제일 부강했던 때가 다윗 왕을 이어 받은 솔로몬 왕이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 다 7년 동안을 건축하여 성전을 지었다. 그 성전의 크기는 천정 높이가 45피트, 넓이가 30피트 그리고 길이가 60피트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예배실과 거의 같은 크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솔로몬은 그 당시 좋은 건축 재료를 사용하였고 또 내부 장식을 순금으로 입혔다고 한다. 그러나 음향학적으로 분석한다면 잔향계수는 2-3초가 되지 않을까 추측 된다. 왜냐하면 순금으로 장식하고 또 천정 높이가 우리교회 높이보다 두 배가 되니 Standing Wave가 많이 생겨서 아마도 설교나 합창을 그 안에서 불렀다면 꽤 시끄러웠을 것이다.

이제 왜 내가 우리교회 예배실이 아름답고 자랑스럽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 새 성전 건축기념으로 2003년 5월 25일 봉헌예배를 드리고 곧장 로마 합창단을 초청하여 우리 교회에서 공연을 하였다. 그들은 몇 차례씩 미국 순회공연을 하곤 했는데, 우리교회와 같이 음향이 좋은 데서 성가와 가곡을 불렀던 적은 없었다고들 평해주었다. 우리가 물어 본 것도 아닌데 그들이 부르면서 Pleasing sound와 Warm sound를 그들 스스로가 느꼈던 것이다. 그때 우리교회 성전이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 하고 매우 흐뭇했었다. 나는 이런 이유로인해서 우리교회 성전을 자랑하고 싶지는 않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 성전 안에서 우리 김목사님이 증거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실! 성령께서 동참하시는 예배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거룩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성전이라고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감사와 찬송이 나의 심령 속에서 울려 나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 할 수 있는 곳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성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나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드렸던 기도를 다시 드리고 싶어진다. 우리 모두 함께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신앙생활 하자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아멘-

좋은 남편이 됩시다.

저는 결혼 8년차에 접어드는 남자입니다. 저는 한 3년 전 쯤에 이혼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야 경험하지 않으면 말로 못하죠. 저의 경우는 딱히 큰 원인은 없었고 주로 아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더군요. 저도 회사생활과 여러 집안 일로 지쳐있던 때라 맞받아 쳤구요.

순식간에 각방 쓰고 말도 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화가 없으니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갔구요. 사소한 일에도 서로가 밋게만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혼의 타이밍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도 눈치가 있는지 언제부턴가 시무룩해지고 짜증도 잘 내고 잘 울고 그러더군요. 그런 아이를 보면 아내는 더 화를 불 같이 내더군요. 저도 마냥가지었구요. 계속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러는 것이 우리 부부 때문에 그런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Closed on Sundays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가끔 외박도 했네요. 그런데 바가지 글을 때가 좋은 거라고 저에 대해 정내미가 떨어졌는지 외박하고 들어가도 신경도 안 쓰더군요. 아무튼 아시겠지만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 들어가듯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러기를 몇 달, 하루는 퇴근길에 어떤 과일 아주머니가 딸이라고 하면서 글을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에 다 사서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주방 탁자에 올려 놓고 욕실로 바로 들어가 씻고 나오는데, 아내가 내가 사온 글을 까먹고 있더군요. 몇 개를 까먹더니 "꿀이 참 맛있네."하며 방으로 쓱 들어가더군요.

순간 제 머리를 쿵 치듯이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글을 무척 좋아했다는 것하고, 결혼 후 8년 동안 내 손으로 글을 한 번도 사들고 들어간 적이 없었던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생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 길 가다가 아내는 글 좌판상이 보이면 꼭 천원어치 사서 핸드백에 넣고 하나씩 사이좋게 까먹던 기억이 나더군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적해져서 내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골집에 어찌다 갈 때는 글을 박스채로 사들고 가는 내가 아내에게는 8년 간이나 몇 백원 안하는 글 한 개 사주지 못했더니,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 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전혀 쓰지 않게 되었다는 걸 알았죠. 아이 문제와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말이죠.

반면 아내는 나를 위해 철마다 보약에 반찬 한 가지를 만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신경 많이 써 줬는데 말이죠.

그 며칠 후에도, 늦은 퇴근길에 보니 그 과일 좌판상 아주머니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샀습니다. 저도 오다가 하나 까먹어 보았구요. 며칠전 아내 말대로 정말 맛있더군요. 그리고 살짝 주방 탁자에 올려 놓았죠. 마찬가지로 씻고 나오는데 아내는 이미 몇 개 까먹었나 봅니다.

내가 묻지 않으면 말도 꺼내지 않던 아내가 "이 꿀 어디서 샀어요?" "응 전철 입구 근처 좌판에서" "꿀이 참 맛있네."

몇 달 만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도 몇 알 입에 넣어주구요. 그리고 직접 까서 아이 시켜서 저한테도 건네주는 아내를 보면서 식탁 위에 무심히 글을 던져놓은 내 모습과 또 한 번 비교하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걸 찾은 듯 집안에 온기가 생겨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주방에 나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보통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 사이가 안 좋아진 후로 아침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냥 갈려고 하는데, 아내가 날 붙잡더군요. 한 술만 뜨고 가라구요. 마지못해 첫 술을 뜨는데, 목이 메여 밥이 도저히 안 넘어 가더군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울구요.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한마디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부끄러웠다고 할까요. 아내는 그렇게 작은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일에도 감동받아 내게

로 기대올 수 있다는 걸 몰랐던 나는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가 아니었나 싶은 게,

그간 아내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내 자신이 후회스러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후, 우리 부부의 위기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은 싸우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꿀이든 뭐든 우리 사이에 매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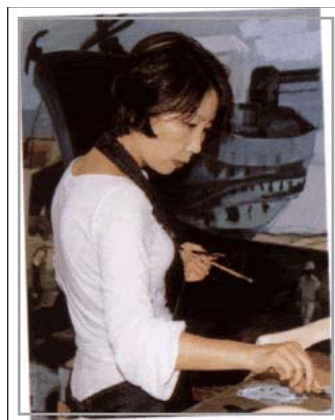
Enjoyable mix of East and West

Park Fine Art show features South Korean American works

BY WESLEY PULKKA For the Journal

The "2010 Fall/Winter International Show" at Park Fine Art features South Korean and American artists Yu-Ra Lee, Yong-Joo Gi, Alan Paine Radebaugh, Woon-Hang Joo, Jae-Cheon Oh, Sam-Ryol Ryu and Young-Sun Son, all of whom are inspired by French impressionism, European modernism, traditional American and European arts as well as traditional Asian arts.

"Tradition I" by Yu-Ra Lee is a stunning mixed-media painting on handmade paper that radiates natural energy. Her composition is a blend of realistic and abstract imagery that has depth and an inner magnetism. The blossoms, that seem to dance through the scene are rendered in low relief. The paper is actually built up to form each flower petal.



Yong-Joo Gi has developed a personal style that includes touches of fauvism as well as inspiration from both Asian and European woodblock prints. One of my favorites is "Home Sweet Home," an idealistic depiction of a mountain pool fed by a waterfall. An outsized white bird in a treetop observes

both the scene and the viewer.

Park Fine Art's owner/ director, Young-Sook Park, has been organizing international traveling exhibitions among South Korea, Japan and New Mexico for several years and has included

many American artists in the cultural exchange.

For this year's, Albuquerque exhibit she includes works by Radebaugh, an Albuquerque artist who exhibits extensively. I first encountered Radebaugh's paintings 16 years ago at the Unitarian Church of Albuquerque.

His church show included tropical birds, flowers and large abstract works that appeared to illustrate rifts in the time/space continuum. Over the years his work evolved into highly detailed fragments of landscape shapes, colors and textures.

His works in this show range from what appear to be close-ups of tree bark or rock formations to "Field Painting #5" which contains many elements from his tropical bird's series from almost 20 years ago.

These newer works also relate to a series of grass drawings Radebaugh did a couple of years back. The new work reveals complete leaves, seeds and other fragments of the landscape experience. These paintings are open, breathing images as opposed to the densely ponderous textural works.

Jae-Cheon Oh is a masterful realist who paints still life with the skill of a European master. His "The Apples" is a lovely and sensitive portrait of an iconic fruit.

Sam-Ryol Ryu paints beautiful butterflies flitting between flowers against a stunning azure sky adorned with fluffy white clouds. These pictures are breathtaking.

Realistic drawings in Dutch medical books and other European art forms imported to Japan during the 400-year-long interaction between the Netherlands and Japan had a profound impact on Japanese and other Asian artists.

Korea's more than 5,000-year history as a continuous culture includes the invention of the movable type printing press in 1230, two centuries before Gutenberg's introduction of a movable type press in Europe. More than a century ago French post-impressionists like Van Gogh and others became fascinated with Japanese woodblock prints and Asian calligraphy. The births of surrealism in Europe and abstract expressionism in American can be attributed in part to Asian inspiration.

Woon-Hang Joo paints winter landscapes and

still life inspired by French impressionism. Joo's stylized female nudes are rendered in an expressionist mode that combines European constructivist geometry with an acerbic fauvist palette.

Joo's landscapes incorporate Asian contemplative philosophy with beautifully rendered winter scenes touched by European impressionist inspiration. The snow-covered ground and foliage shorn of leaves by the change of seasons could be found almost anywhere.

This show is a wonderful combination of styles and cultures that many art lovers will enjoy. The inclusion of Radebaugh's works creates a seamless connection between East and West.

If you go

WHAT: "2010.Fa]VWinter International Show" featuring works by Jae-Cheon Oh, Yu-Ra Lee, Sam-Ryol Ryu, Woon-Hang "Red" Joo, Alan Paine Radebaugh, Yong-Joo Gi and Young-Sun S6n

WHEN: Through Nov. 26. Hours are: 11 a.m.-4 p.m. Mondays-Fridays and by appointment. Call 764-1900

WHERE: Park Fine Art, 20

First Plaza, Suite 27, at

Second and Copper NW

HOW MUCH. Free

(From The Sunday Journal, October 31, 2010)

PARK Fine Art
The Galeria 20 First Plaza NW Suite 27
Albuquerque, NM 87102

문화센터 강의 안내

성인, 주부침미반 (유화-oil painting과 파스텔화)
임시반 (포트 폴리오준비반, 덧생반)

강사: 박영수
서양화가, 컬러리 Director,
UNM CE oil painting 강사

자세한 안내 문의
컬러리: (505)-764-1900 휴대폰: (505)-681-3859
www.parkfineart.com E-mail: contact@parkfineart.com

"남미대륙 횡단도로 27일 착공"

(상과올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남미대륙을 가로 지르는 횡단도로의 착공식이 오는 27일 열린다고 볼리비아 정부가 6일 밝혔다.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 동쪽으로 900km 떨어진 산타크루스 시에서 열리는 착공식에는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오 롤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알바로 가르시아 볼리비아 부통령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착공식 참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체 길이가 5천850km로 예정된 남미대륙 횡단도로는 대서양 연안의 브라질 산토스 항에서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스, 코차밤바, 오루로 주를 거쳐 태평양 연안의 칠레 아리카 및 이키케 항을 연결하게 된다.

한편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는 안데스 산맥을 관통하는 안데스 터널 공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안데스 터널은 아르헨티나 산 후안과 칠레 태평양 연안의 코킴보 항을 잇는 구간으로,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쪽의 도로와 연결되면서 또 하나의 남미대륙 횡단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남미대륙 횡단도로와 안데스 터널이 완공되면 남미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칠레의 아리카, 이키케, 코킴보 항이 아시아-태평양을 향 한 남미 국가들의 출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北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사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북한 조명록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6일 오전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전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공동명의로 부고를 발표하고 "조명록 동지가 장기간 심장병으로 2010년 11월 6일 10시30분 82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했다"고 밝혔다.

부고는 "조명록 동지는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미제에 의해 분열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했으며, 우리 당과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를 높이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 중앙위와 중앙군사위, 국방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후계자 김정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등 북한 고위 인사 170명을 위원으로 망라해 대규모 장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공군 출신으로 6·25전쟁 때 비행사로 참전하기도 했던 조명록은 공군사령관을 거쳐 1995년 10월 인민군 총정치국장에 임명됐으며,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국방위 제1부위원장에 선임되면서 사실상 김 위원장에 이은 북한 권부 내 2인자로

활동했다.

특히 2000년 10월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했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연회 등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공개활동이 급격히 줄어 2007년 2차례, 2008년 1차례, 2009년 3차례, 올해 1차례 등 2007년부터는 사실상 대외활동을 중단해 왔다.



시세이도 화장품
문상옥 (Beauty Advisor)
H: 890-4018
B: 883-5900
SHISEIDO
 Dillard's 백화점
 2100 Louisiana Blvd Ne Ste 155
 Albuquerque, NM 87110

삼호드림호 석방..선원 모두 무사

"해적들 몸값 950만弗 수령"

(요하네스버그.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지난 4월 초 인도양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원유운반선 삼호드림호가 석방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케냐 몸바사에 본부를 둔 동아프리카 항해자 지원프로그램(EASAP)의 운영자 앤드루 트완구라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삼호드림호가 오전 11시께 석방된 뒤 미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원들은 모두 무사하며 건강하다"고 밝혔다. 삼호드림호는 석방을 대가로 900만달러의 몸값을 지불했다고 트완구라는 덧붙였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삼호드림호의 석방이 임박했다"며 "현재 선원들의 안전문제가 있어서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상세사항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말리아 해적들이 지난 4월 납치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한 삼호드림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950만 달러(약 105억원)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자신의 이름을 후세인이라고 밝힌 한 해적은 "지금 금액을 세고 있고 곧 배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알리라고 밝힌 또 다른 해적도 "아침 일찍 950만 달러를 받았고 지금은 몸값을 나누고 있으며 (곧) 배를 버리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또 EASAP 운영자인 브완구의 말을 인용, "해적들은 애초 2천만달러(약 221억원)를 요구했다"면서 이번에 지급된 몸값이 지난 몇년간 치러진 선박 몸값 중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삼호드림호는 지난 4월4일 1억7천만달러(약 1천880억원) 상당의 원유를 싣고 한국인 승선원 5명과 필리핀 선원 19명을 태운 채 이라크에서 미국으로 가던 중 인도양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다.

오바마 뭄바이서 反테러성명 발표

(뭄바이<인도>=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아시아 4개국 순방의 첫 기착지인 인도의 뭄바이를 방문, 국제적인 테러에 인도와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반(反)테러 성명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뭄바이에 도착한 후 2008년 11월 뭄바이 테러의 현장이자 자신의 숙소인 타지마할 팰리스 호텔로 직행, 당시 테러 희생자 유족들과 생존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인도는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와 양국의 국민을 지키기 위해 결코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파트너"라고 선언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이날 뭄바이 테러 추도식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뭄바이는 인도의 힘과 생명력의 상징"이라며 "미국과 인도는 양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함께 땀 흘릴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뉴델리에서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반(反)테러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타지마할 호텔 방명록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2008년 11월26일 뭄바이 테러의 슬픔은 물론 그날 (인도인들이) 보여준 용기와 인류애도 항상 기억할 것"이라며 "미국은 테러리즘을 척결하는데 인도인들과 단결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2년전 뭄바이 시내에서 사흘동안 자행된 테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166명에 달했으며, 주요 테러표적의 하나였던 타지마할 호텔에서는 35명이 사망했다.

한편 인도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성명에 대해 "테러척결을 위한 의지를 보였지만 일반론에 그쳤다"면서 "파키스탄이 테러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을 비판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

{종교 소식}

뉴멕시코 성결교회

전종철 목사님

주일에배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시간: 5:30 am (매일)

§장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로스 알라모스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님

주일에배 1부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에배 2부

§시간: 2:00 pm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목사님

주일에배

§시간: 11:00 am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님

주일에배 (Worship)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in English)

§10:00 am (Sunday)

수요일예배 (Wed. Night Worship)

§7:30 pm (Wednesday)

새벽기도회

§5:30 am (Mon-Fri)

§6:00 am (Sat.)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님

주일에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연락처: 505-453-5461

했다.

또 이들은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란서 규모 4.9 지진에 100여명 부상

(카이로=연합뉴스) 고웅식 특파원 = 이란 서부 지역에서 6일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100여명이 부상했다고 이란 국영TV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2분께 로레스탄 주의 도루드 마일 일대에서 일어난 이번 지진으로 부상한 100여명 중 25명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경상자들은 치료를 받은 뒤에 귀가했다.

지진단층 선상에 위치한 이란에서는 지난달 9월 27일에도 남부 파르수 주의 코나르 타크테 지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

2003년 12월에는 이란 밤시(市)에서 규모 6.6의 지진으로 이 지역 전체 인구의 25%인 3만1천여 명이 숨지기도 했다.

印尼 머라뻬 화산 분출로 항공편 36편 취소

(자카르타.머라뻬 AFP, AP, dpa=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머라뻬 화산의 화산재 분출이 계속되자 6일에는 급기야 수도 자카르타 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이 취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인도네시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민 방문을 앞두고 있다.

화산으로부터 450km 떨어진 자카르타 국제공항에서는 이날 대한항공(KAL)을 비롯한 11개 항공사의 항공편 36편의 이착륙이 취소됐다.

자카르타 국제공항의 대변인 수카르노-하타는 화산 분출 때문에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변인 수다리안토는 "머라뻬 화산에서 분출되는 화산재 때문에 안전을 우려, 운항이 취소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안전 상황에는 문제가 없다. 화산재가 실제로 자카르타까지는 날아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운항이 취소된 항공사는 대한항공 외에도 싱가포르 에어라인, 에어아시아, 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에어라인, 일본항공(JAL), 터키 에어라인, 루프트한자, 차이나 에어라인, 타이거 에어와 현지 항공사인 만달라이다.

한편 지난 2주 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진 머라뻬 화산 폭발로 6일 현재 모두 138명이 사망했다. 5일 하루 동안 사망자의 수는 94명이었다. 부상자는 200명 이상으로 이들은 화상, 호흡기 손상, 팔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화산재의 계속적인 분출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사원인 보로부르드 사원도 위협을 받고 있다.

보로부르드 유산 보존기구의 최고 책임자인 마르시 스 수도포는 "화산재가 3cm 정도 사원을 뒤덮고 있다. 산성을 지닌 화산재가 보로부르드 사원 석재를 침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산재를 청소하지 않으면 석재의 침식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로부르드 사원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관광 자원 중의 하나이다.

로버트 솔러 목사, 교회 재정 위해 직접 나서 주일예배서 "십일조 내 달라" 이례적 호소

금융위기가 닥친 후 극심한 경기 침체기를 지나면서 미국의 교회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최초의 대형교회로 자리매김했던 수정교회가 최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챗터 11)를 신청했다.

수정교회의 이 같은 재정난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몇달 전 미국 기독교 월간지 크리스챤티티투데이가 발간하는 'State of Plate'에 따르면, 미국의 교회들이 경기침체가 시작된 2008년 당시보다 2009년에 더 큰 폭으로 헌금이 감소해 행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교회 중 절반에 가까운 47%가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헌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교인수가 100명에서 499명 사이인 교회 중 40%가 헌금감소를 보였다고 답했고, 교인수 100명 이하인 교회는 전체의 36%가 헌금감소를 경험했다.

1만명 이상의 성도 숫자를 가진 남가주 대표적인 대형교회인 수정교회 역시 어려운 재정난에 허덕이다 지난해 성탄절행사인 '성탄의 영광' 프로그램을 위해 빚을 지면서부터 교회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

현 담임 설라 솔러 쿨먼牧사는 수정교회 웹사이트에 남긴 글에서 "전례 없는 불경기로 인한 급격한 수입 감소로 정상적인 교회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우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문제를 이겨낼 것"이라고 밝혔다.

쿨먼牧사는 "1977년 예배당을 짓겠다고 했을 때도 다들 회의적이었지만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며 "1955년 창립한 이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전했던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될 것이며, 재정적인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교회를 창립하고 대형교회로 일군 장본인인 로버트 솔러(84) 목사 역시 직접 나서서 교인들에게 교회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로버트 솔러牧사는 파산신청을 신청한 이래 처음 열린 24일 주일예배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며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혹 십일조를 내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교회를 위해 십일조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에서도 담임 목회자가 직접 교회의 재정난을 호소하는 일은 드문 가운데, 솔러牧사의 이 같은 요청은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교회를 살리고자

직접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컬먼 목사는 로버트 쉐러 목사의 장녀로 지난 2009년부터 담임목사로 사역 중이다.
(크리스천투데이 10월 29일자 기사)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죄악’ 이다”

이번 제3차 로잔대회에서는 세상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주의 교회들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복음주의 교회들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3차 로잔대회 문서인 케이프타운 서약(The Cape Town Commitment) 초안 작성자로서 로잔신학위원회 전 의장인 영국의 크리스 라이트(Wright) 박사는 대회 여섯째날 ‘진실함(Integrity)’을 주제로 진행된 일정 가운데서 본회의 강연을 전하고 교회들에 “겸손하고 진실하며 단순한 신앙으로의 회귀”를 촉구했다.

라이트 박사는 먼저 오늘날 교회들이 “권력과 명예, 인기와 성공, 그리고 부에 대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날카로운 진단을 내리고, 이같은 교회의 타락이 야말로 오늘날 세계 선교를 가로막는 제일의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의 열망에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다른 종교도, 박해도, 세상의 문화도 아닌 바로 그분의 백성들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하나님을 가장 상처 입히는 것은 세상의 죄악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들의 죄악”이라며, 오늘날 교회들의 우상 숭배는 통계 수치로 나타나는 성과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입증되지 않은 수치들과 진실되지 않은 보고들과 조작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는 지원을 받기 위한 이유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 주기 위해서 이같은 수치들을 쫓는 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 없다”고 라이트 박사는 비판했다. 그는 “이처럼 진실되지 못한 기반 위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고 단언했다.

라이트 박사는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일부 교회들이 이같은 성경의 메시지를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만 왜곡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나,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변형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는 “스스로를 부유하게 할 뿐”이라고 라이트 박사는 말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 특히 그리스도가 본으로 보이신 것과 반대되는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교회 안의 이같은 모습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는 교회의 수치가 되고 있으며, 선교의 장애물은 물


론, 세상의 문제들을 정확히 보지 못하도록 교회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한 “일부 교회가 잃어버린 진실성과 신뢰성은 교회 전체의 대가로 나타난다”며 “급기야 교회가 세계의 죄악을 지적하자 세상으로부터 ‘자기 앞마당부터 청소하라’는 비판을 듣기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같은 유혹에 빠지고 있다고 라이트 박사는 안타까워했다. 그는 “비극은 너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극복하셨던 시험들에서 실패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성공과 명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라이트 박사는 “개혁이 또다시 교회의 절실한 필요가 됐다”며 참석자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교회를 향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으로의 회귀를 촉구했다.

그는 오늘날 세계 교회를 위해 필요로 되는 것은 겸손함과 진실함, 그리고 단순함의 세 가지, 즉 ‘HIS(Humility·Integrity·Simplicity)’라고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그분의(his)’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세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트 박사는 “세계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며, 세계를 바꾸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과 방식을 바꿔야 하며,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찾으러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끝으로 당부했다. (크리스천투데이 11월 3일자 기사)

**Break out of your shell...
EXERT CONFIDENCE!**



**Watch them transform
and become more:**

- Self-Confident
- Disciplined
- Flexible
- Coordinated

Give your kids the edge they
need to succeed while having
great fun.

Dynamic Taekwondo Center
5850 Eubank # B - 35
(505) 271-2000
New master in town
Master Jaeshin CHO
CALL NOW !!!!
I'll honor all previous Y'kim's,
pride tkd students

**Special
Introductory class
\$29.95
FREE Uniform**

Expires on June 30 2010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BQ
(505-275-9021)

Ar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BQ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Midori Susui 6205-B
Montgomery NE ABQ
(505-830-2507)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BQ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BQ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BQ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츄럴: 2302 Morris
NE, ABQ (505-453-5461)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모텔 Hotel/Motel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BQ
(505-881-3210)

부동산 Realtors

그레이스김 Grace Kim:
Kerzee Real Estate
(505-315-5123)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주진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E. Bonaguidi:
Vaughan Company
(505-249-8686)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BQ
(505-883-9009)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Central Outlet: 4716 Central
Ave SE, ABQ (505-
255-4345)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Dynamic(Ashley):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fance Hair Salon(Tina):
4300 Ridg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P.O.Box
94855, ABQ, NM 97199
(408-334-7227)

샌티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주택융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200 Lomas
Blvd. NW 11flow 87102
(Office
505-765-5098) (cell
505-379-1089)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BQ
(505-271-2633)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Master Jaeshin
Cho(505) 296-0336

한의원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BQ
(505-710-7504)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514-2900)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Osaka Restaurant: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505-892-777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i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추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

겔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5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Five Brother's Chinese:
1001 E. University Ave.,
Cl, Las Cruces
(575-496-2445)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정보마당

렌트/부동산

도와주세요

구인/구직

연방 국세청 IRS - Tax Advocate Service에서
지정된 본 회사는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해
채류 신분제에 관계없이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세무처리 해 드립니다.
한국어 상담은 '게일' 을 찾으세요.
Low Income Taxpayer Clinic
Imperial Services Corp.
Nonprofit Organization
7103 4th Street NW, Unit O-3
Albuquerque NM 87107
Tel: 505-503-7252
www.imperialnm.org

사고/팔고



알버커키 박영숙 화가(www.youngsookpark.com)와 김수영 화가(www.geocities.com/hongsooyoungstudio)의 작품들입니다.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

stamp here
 61 cent 우표
 붙인 후 반으로
 접어서 발송

To: